

# 광주, 2단계 AX실증벨리 완결해야 AI중심도시 도약 가능

### AI 1단계 사업 이후 진전 없어 '인공지능 대표 도시' 구축 사업 표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모델시티' 조성 대선 후보·정당에 전달

광주는 AI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AI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선정한 인공지능 실증 벨리 조성(AI 2단계) 사업에 대한 국회 확보가 지연돼 광주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대표 도시' 구축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AI모델시티' 조성을 위한 10조 규모의 사업을 지역 공약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AI모델시티는 데이터 집적·학습·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AI 기반 순환 경제 기틀을 마련하고 AI 초연결 시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현재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 집적단지' (4만724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집적단지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AI 1단계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69억원(국비 3045억원, 지방 850억원, 민간 674억원)을 투입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등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단지 내에는 실증창업동을 조성해 AI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다.

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을 위한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엔비디아 GPU H100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연산 능력 88.5 PF(페타플롭스)를 갖추고, 저장능력도 107PB(페타바이트)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1~2024년 2091건의 학습모델 개발 및 개선으로 996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국내의 특허 출원·등록은 788건을 했다.

또 328건의 모델을 상용화해 611건의 국내의 논문이 게재됐으며, 2173명의 신규고용 효과를 냈다.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의 경우 국내 유일 실차 기반의 가상환경 자율 주행 기술의 실증을 할 수 있고, 첨단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AI 집적단지 공사는 오는 6월 완공돼 사실상 광주 AI 1단계 사업은 마무리 수순이다.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으로 2029년 까지 글로벌 AX실증벨리 (9000억원) 조성을 준비중이지만, 탄핵정국으로 국비(957억원) 확보가 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AX(AI Transformation)는 단순히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중심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AI 개발과 인프라 확보에 집중했던 1단계를 넘어서 실제 업무와 산업의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2단계 전략을 위한 것이다.

광주는 AI 집적단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점에서 AX실증벨리를 완결하고 2030년까지 조성을 앞둔 국가 AI 핵심 인프라인 국가AI컴퓨팅센터를 유치해 AI 모델시대를 조성해 AI 중심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10만장의 GPU를 확보해 초거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하고 AI 반도체 등과 함께 기존 9대 대표산업(모빌리티,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가전산업, 스마트부품, 반도체, 데이터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경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선거캠프 개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에 개소한 선거캠프에서 열린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김경수·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세종 분원을 설치해 서울과 세종에서 함께 근무하고,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되는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이 필요 이상의 많은 권한을 가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낳는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와 주로 협의할 게 아니라 내각 장관과 주로 협의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세종시 집무 시간을 늘려 직접 장관들과 협의해 책임지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먼저 법으로 추진하고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 정부가 반드시 그렇게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가 운

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 전국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도록 헌법부터 바꾸고, 자치권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제전문가로서 국제무대 경험을 내세워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나, 미래로 나아갈 것 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당원 50%·여론조사 50%로 선출

### 대선 후보자 경선룰 확정 16~18세 '청소년 당원'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관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당원 투표에는 정당사상 처음으로 16~18세 '청소년 당원'이 참여한다. 또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 본부장단에 박군택(광산갑)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으로 선임됐다.

13일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리당원 투표를 위해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순회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순회경선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관리당원 투표에는 16~18세 당원도 최초로 동참한다. 이들 청소년 당원을 포함한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만여명이 관리당원 투표 참여 대상이다.

이는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 하한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표본 100만명을 여론조사 기관 2곳에 50만명씩 나눠 실시한 뒤 결과를 합산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 적용한 선거인단 투표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를

채택한 것은 선거인단 모집의 경우 특정 종교 등의 부 세력이 개입해 조직적인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짧은 기간 치르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표 시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준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갑자기 대선이 열리게 된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캠프는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 측 백완순 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선 당사자 이후 추과 경선 료에 대해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지금의 민주당 모습은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특별당규는 13일 전당원 투표와 14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13일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안규백 특보단장, 박군택 법률지원단장 김병기 조직본부장, 박상혁 홍보본부장, 강득구 현안 대응 TF 단장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2025 봄날의 꽃, 봄밤의 빛

# 화순봄꽃축제

## 2025. 4. 18. (금) ~ 4. 27. (일)

### 화순 남산공원 및 꽃강길 일원

낮에는 **꽃강길에서 봄꽃**을,  
밤에는 **남산공원에서 야간경관**을!

문의 : 061-379-3575~7    <https://www.hwasun.go.kr/festival>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